

孝사상 실천·생명 존엄성 일깨우는 날로

〈27면에 이어서〉
 <우란분절>은 목련존자를 주인공으로 하고, 또 아귀도에 떨어진 부모(또는 7세의 부모)의 구제를 위한 것이고, 이에 비해 <시아귀경>은 주인공은 아난이며, 아귀도 떨어진 아귀 구제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아귀도에 떨어진 영혼을 구제한다는 의미에서는 서로 같다. 이러한 성격으로도 조상과 아귀의 영혼을 구제하는 우란분절과 시아귀회가 서로 습합되어 오봉의 행사로 정착돼 있는 것이다.

한편 조상을 모시는 행사는 크게 나누어 조령을 맞이하여 모시고 대접하여 돌려보내는 것으로 되어있다. 조령을 맞이하는 방법은 일정치 않다. 지역과 가정에 따라서 대문 앞, 교차로, 하천, 또는 묘지 등에서 불을 피우면서 맞이하기도 한다. 특히 교토의 히가시 오모타리(東大谷)의 본묘(本廟)에서는 만등회라 하여 묘지에 등을 달아놓고 조상을 모셔온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조령이 빨리 오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집 또는 오이로 만든 말을 장식하기도 한다.

이렇게 모셔온 조상은 3종류의 계급이 있다. 하나는 '호도케(佛)'라 불리는 정식 조상이 된 영혼(佛)이며, 또 하나는 사망한지 얼마 안되는 새 조상(新佛)이며, 또 다른 하나는 흔히 아귀(餓鬼)라 불리는 무주고혼(無主孤魂)들이다. 그에 따라 모셔지는 제단도 달랐다. 즉, 선조대에 속하는 조상들은 불단 또는 불단 앞에 차려지는 제단에 모셔지지만, 새로운 조상은 그보다 약간 낮게 따로 설치되며, 아귀들은 별도의 장소에 마련된 곳에 모셔지게 된다. 그들은 오봉 기간 내내 후손들과 함께 머물러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조령들을 보낼 때는 개별적으로 보내는 방법과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맞이할 때와 마찬가지로 집의 문 앞이나, 교차로, 하천, 묘지 등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보내지만, 후자의 경우는 봉오도리(盆踊)라 하여 집단적으로 춤을 추며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나라(奈良)의 동대사(東大寺)에서는 경내에 수많은 등등을 켜는 만등회를 벌여 조령들을 보내기도 한다. 그리고 교토에서는 다이몬지야키(大文字焼)라 하여 교토를 둘러싸고 있는 산에다 불을 질러 여러 가지 문자와 그림의 형태를 만들어 그것을 통하여 돌려보내기도 한다.

일본의 오봉은 설날과 더불어 2대 명절이다. 설날에는 신이 찾아온다면 오봉은 죽은 조상들이 집을 찾아오는 날이다. 오봉 시기에 찾아오는 조령들을 모시는 행사를 불교가 우란분절과 시아귀회를 통하여 흡수해 있는 것이 일본의 백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상 영혼을 극적으로 보내드리는 배.

우란분절의 현대적 전승

음력 7월 15일에 행하는 우란분절 즉 백중행사는 우리만이 가지는 고유의 명절이 아니다. 중국, 일본은 물론 베트남에서도 이 날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시아 국가가 공통적으로 백중의 문화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불교의 힘이 절대적이다.

일반적으로 우란분이라는 말의 기원이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의 거꾸로 매달려 받는 고통이라는 의미인 우람바나(Ullambana)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혹자는 그 기원이 인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역의 이란에 있다고 했다. 즉, 영혼을 의미하는 이란어 우르반(urvan)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란분회는 세계적인 종교·민속행사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란분회는 서역으로부터 전해져 인도에 정착하였고, 그것이 다시 불교에 흡수되어 동방으로 전해져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베트남 등지로 확산되어 토착의 조령제 및 농경의례와 습합되어 정착되었을 것으로 사려된다. 이처럼 불교의 우란분회는 세계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행사이자 민속행사이다.

일본은 우란분회를 설날에 필적할 만큼 2대 명절로 발전시켰고, 대만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곳곳에서 큰 행사를 벌인다. 이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의 백중행사는 너무 초라하다. 단지 불자들에게 의해 사찰에서 자신들의 조상천도기도에 그치고 있고, 또 의식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절마다 각기 다르게 행하고 있다. 그것도 대개 오전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 날이 어떤 날인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기 일쑤이다. 나는 우리의 백중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그 의미를 현대사회에 맞추어서 되살릴 필요가 있다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부모에 효도·이웃에 자비 실천을

첫째는 백중을 효를 실천하는 날로 만드는 일이다. 백중은 효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불교행사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죽은 조상뿐만 아니라 산 조상도 위하는 날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과거 일본에서는 백중날을 기해 죽은 조상뿐만 아니라 산 조상도 보살피는 날이었다. 이런 전통을 살려 자신의 부모를 비롯한 불우한 노인들을 돌보는 효의 날로 삼자는 것이다.

둘째는 활벗고 굶주린 이웃을 돌보는 자비의 날로 만들자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백중날 자신의 조상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승으로 오는 아귀들에게 베푸는 시아귀회를 빠뜨리지 않고 실



우란분절을 효와 자비 실천의 날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은 한 사람이 마련한 경로잔치 모습. <현대불교자료사진>

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대만의 경우는 자신의 조상보다 아귀들을 접대하는 데 더 중점이 가 있기도 하다. 이는 매우 소중한 의미를 시사해준다. 즉, 자기 사랑이 아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배어있기 때문이다. 백중을 기해 자리아티를 기반으로 하는 자비를 실천하는 날로 만들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근신하는 시간으로

셋째는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참회의 날로 삼자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백중에는 스님들이 하얀거 기간에 지은 죄과를 들어서 여러 대중에게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것을 확대하여 승려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참회하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다. 더군다나 백중이 있는 7월은 1년 중 절반이 지나간 시기이다. 그러한 기회를 가질 때 나머지 절반의 시간은 근면하고 선량한 마음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언행을 조심하는 근신의 날로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백중은 조상을 절에서 차려진 식사회에 초청하여 대접하여 돌려보내지만, 중국과 일본은 그렇지 않다. 7월 한 달 내내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머문다. 그러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금기사항이 있었다. 특히 대만에서는 이 기간 동안 수영을 하거나 밭길을 걷고, 또 휘파람을 부는 등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약혼과 결혼식, 이사, 개업식 등과 같은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은 가급적 하지 않는다. 그만큼 몸가짐을 경건하게 하고 말과 행동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되살려 백중을 기해 근신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바쁘게 살아가며 거친 말을 마구 쏟아내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불교민속예능의 발전 계기로 삼아야

다섯째는 백중을 기해 불교민속예능을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우란분회는 목련의 효도 있고, 또 자욱이라는 테마도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불교민속예능을 발전시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중국에서는 목련의 이야기가 중원을 맞이하여 여기저기서 인형극 또는 연극으로 무대에 올린다. 이러한 것이 기반이 되어 호남성 화희시(懷化市)에서는 목련회 화희가 성립되었고, 또 그 화희가 91년 2월과 3월에 복건성에서 국제화희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찰에서 소중한 보관해두는 지옥도를 내려 백중날 절에 찾아오는 아이와 신도

들에게 친절하게 상세히 설명하며, 죄업을 짓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우리도 이러한 예능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중국 운남성 보미족이 사는 어느 마을 광장 벽에는 온통 지옥도가 그려져 있다. 이를 보고 자라난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 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할 것이다.

다행히도 오늘날 우리 일부 사찰에서 백중을 맞이하여 '백중맞이 경로잔치', '생명해방 대축제'를 개최하여 효의 사상과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기도 한다. 그리고 2002년 부산시의 어느 사찰에서는 목련존자의 어머니 구원 이야기를 연극으로 꾸며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비록 일부이지만 백중을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산 자들 위해서 지역축제로 발전시켜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연극을 통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불교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효와 자비 그리고 참회와 근신을 바탕으로 불교민속예능을 만들어 발전시켜나갈 때 진정한 백중의 의미가 짙어질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을 백중을 기해 기대해 본다.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팽과리

-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니다
-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uk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용당 문성 - 회음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텔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로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